

식 순

- 1. 개 식
 - 1. 국 민 의 례
 - 1. 청 수 봉 전
 - 1. 심 고
 - 1. 주문3회병송
 - 1. 독립선언서 낭독
 - 1. 천덕송 합창 _ 공 락 가
 - 1. 기 념 사
 - 1. 3·1절 노래 합창
 - 1. 만 세 삼 창
 - 1. 심 고
 - 1. 폐 식
-

기념행사

- 탑골공원 의암성사 동상참례 _ 청년회 주관
 - 뮤지컬 공연
 - 거리 행진 _ 청년회 주관
-



기 념 사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하에서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과 우리나라가 자주국임을 온 세계에 선언한 3·1 운동 9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에서 인류의 공존공영과 온 생명의 평화상생의 시대를 천명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3·1 운동은 동학 창도 이래 해월신사의 지도하에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천도교 민족운동의 정점이었습니다.

또한 의암 성사께서 10년간을 성지우성으로 준비한 끝에, 3백만 교단의 전력을 기울이면서도 이웃종교인과 함께하고 온 겨레와 더불어 전개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넘어 북간도를 비롯한 중국대륙과 유럽, 미주에까지 퍼져 나갔으며,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약소민족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3·1 운동 이후 우리의 민족운동은 문화운동과 무장독립투쟁을 양 날개로 하면서 상해임시정부로 일원화하여 자주독립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2_ 3·1절 기념식

3·1 운동과 그것을 계승한 항일운동의 결실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은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건국 헌법 전문에 건국정신의 발원지로 당당히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겨레의 가슴에 독립의 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의암성사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3·1 운동은 단순히 정치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수운대신사께서 보국안민 광제창생의 도를 창도하시고, 해월신사께서 다시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개벽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한 진인사대천명의 길이었습니다.

미움과 배격을 앞세운 거사가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씨앗을 퍼트리는 생명운동이었으며, 당시 전 세계에 만연한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얼음을 녹이는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우연한 계기와 국제적인 정세에 기댄 모험이 아니라 정신 수련과 조직의 정비, 물질적인 기반의 비축과 운동 이후의 비전까지를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된 혁명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담긴 정신과 비전은 약육강식의 논리에 편승하고 그 노예가 된 일본과 당시 제국주의의 세력의 무지와 욕망을 깨우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올해 3·1 운동 97주년 기념일은 국가사회와 민족공동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어, 거룩한 3·1 정신을 더욱 절실히 되새

기게 됩니다.

핵 실험 등의 북한 당국의 무소불위 기조와 신형무기 도입 추진과 개성 공단 철수 등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초강경 조치는 결국 우리 민족의 자승자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우경화 행보,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과 중국의 대립, 세계 경제의 침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신음하는 경제 등 밖으로부터의 도전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해부터 3·1 운동 100주년을 준비 중인 우리는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받아 안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교리와 사상이 다른 종교인들이 함께하고, 노소남녀가 어우러지고, 직업과 직위, 학력과 빈부를 초월한 데에서 3·1 운동은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3·1 정신을 다시 배우고, 3·1 운동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남과 북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역사로의 위대한 3·1 운동 기념일을 맞으면서 상호 대결로 치닫는 이 국면을 통일의 원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통일시대의 개막과 남북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모한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천도교는 지난해에 이미 3·1 운동 100주년 준비를 함께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자주독립의 완전한 실현으로서의 민족통일을 이루는 데 앞

장서자고 합의하였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께서도 다시 한 번 3·1 정신으로 하나 되어 우리 민족의 공영발전은 물론 세계 역사의 진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른 길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대결과 갈등, 긴장의 고조를 자국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여기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단견은 머지않은 장래에 스스로를 옥죄고 세계평화를 쪼먹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1 운동 당시에 우리 민족이 그러하였듯이, 전 세계의 평화애호 시민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정의로운 역사 전개를 지지하고 성원하여 줄 것으로 믿습니다.

남북, 해외의 동포 여러분!

3·1 운동의 목표는 과거로의 회귀, 원상회복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과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지자고 주창하는 후천 개벽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이는 한민족만의 살 길을 도모하는 궤기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소용돌이 속에 신음하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새로운 시대, 희망의 세기를 열어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100년 전 그날처럼 이웃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앞장서고, 사회 전 영역, 해외동포를 망라한 민족대표들이 동참하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참신한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며, 10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

과 장소마다 민족의 화해, 계층 간 상생, 세대 간 화합, 보혁 간 공존의 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심화되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상이변과 세계 곳곳의 분쟁, 끊이지 않는 신종 질병의 만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인류가 성장의 시대를 넘어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고통이며, 3·1 정신과 그 실천 운동은 성숙의 시대를 제안한 선언문이었습니니다.

3·1 운동은 이민족의 철권 무단통치라는 사상 최악의 강압통치 하에서 평화를 앞세우고, 생명을 노래하고, 화해와 공영의 신세계를 전망하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날처럼 하나 되어 인류 평등의 대의를 다시금 밝게 하고,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다시금 공유하며,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신세계를 열어 나가야겠습니다.

남과 북의 천도교인 여러분!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 교단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는 장이 될 것이며, 용시용활의 지혜로 대도 중흥을 이룩하는 것은 물론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미 국내의 종교계,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기념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의 동포사회에서도 개인적인 지지와 후원은 물론 조직적인 참여와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찍이 동학군들은 세상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때를 놓치면 후회 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때야말로 천도교인들이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다하여 완성해 나가야 할 천시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3·1 운동 97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3·1 정신을 되새기고, 순도 순국 선열들의 성령출세를 기원하며,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며 기념사를 마칩니다.

포덕 157(2016)년 3월 1일

교령 박 남 수 心告



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 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는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탬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 전부터의 억울을 떨쳐 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하매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꺾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라!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 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

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몰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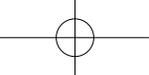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어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국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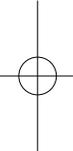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골대(軸)인 4억만 지나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새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 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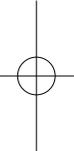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듯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 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공약 3장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1.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공락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 -에 소 리 소 리 울 리 -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 -리 세 간악 마 도 망 하니
 3. 천 도교 의 거 록 한 -덕 널 리 널 리 퍼 -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 -람 온 누리 에 부 - -니

1. 깊 은 밤 에 잠 -든 세 계 놀 -라 깨 도 다
 2. 승 전 고 를 울 리는 곳 에 궁 을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북 우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홍 초 록 봄 - 언덕 에 온 갖 새 부르 짓 네

후렴

듣 도 보 도 못 -한 이 - 풍 류 에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

삼일절 노래



